

시드니, 코로나 시대에 지역예술가와 협업해 거리 활성화 나서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media-releases/artists-breathe-new-life-into-sydney-laneways>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4-new-temporary-artworks-invite-you-to-rethink-the-city-centre>

시드니가 코로나 시대에 거리를 재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City Art Laneway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지역예술가를 선정, 임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를 도시의 미활용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의 거리를 재활성화하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2021년 1월부터 설치를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운영된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시장은 “여전히 코로나19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2021년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다시 시드니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도시공간에 설치된 다양한 작품이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운 경험, 뜻밖의 선물을 선사할 것”이라고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이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예술가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사업에는 예술가 네 팀이 참여하며, 각 팀은 작품 설치를 위해 최대 5만 달러(약 5,658만 원)를 지원받는다. 설치되는 작품의 형태도 다양한데, 발로(Barlow) 거리에는 토착종 식물로 조성된 마이크로 포레스트(micro forest)가 들어선다. 시드니의 대표적 자연 수목림인 ‘eastern suburbs banksia scrub’에서 멸종위기종 30종을 가져와 심고, 호주 토착종이면서 침이 없는 설탕주머니벌(sugarbag bee)도 살 수 있도록 한다. 숲이 ‘전시’되는 동안 대중과 함께하는 공개 강연도 진행된다.

▲윌멧(Wilmot) 거리에 매달린 형태로 설치되어 자연광의 반사와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Ever Sun’ ▲설치된 카드를 고르거나 QR코드를 인식해 운세를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작품 ‘We Are All Astonishingly Wise’ ▲팝컬처와 저항문화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으로 배럭(Barrack) 거리의 가로등에 설치된 ‘Giant Badges’는 도시 곳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거리의 마이크로 포레스트



배럭 거리에 설치된 ‘Giant Badges’

출처: 시드니시 홈페이지,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media-releases/artists-breathe-new-life-into-sydney-laneways>(검색일: 2021. 3. 5.)